

『한국전쟁 · II: NARA에서 찾은 6.25 전쟁의  
기억(1950-1953)』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사진(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박도 엮음, 눈빛, 2010)

이 현 정\*

1991년 소련의 멸망과 함께 냉전시대는 종막을 고하였다. 세계 질서는 냉전체제에서 벗어났으나, 2010년 현재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휴전협정을 통해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남북한 정권은 아직도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치국면에 서 있다.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쟁은 60돌을 맞이하였다. TV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

\* 대검찰청 기록연구사

다양한 매체에서는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여 6. 25. 전쟁에 관한 많은 영상물들을 방영하고 있다. 그동안 역사학계 및 관련 학계에서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한국전쟁이 갖는 의미와 실체에 대하여 연구해왔고, 이는 활자로 된 문서를 통해 한국전쟁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대중매체가 더욱 활성화 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전쟁을 알리는 방법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물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아마도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데에는 뭐니뭐니해도 시각적 매체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최근 ‘한국전쟁’이라는 사진집이 출간되었다. 책표지는 탱크를 배경으로 부모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누이의 때론 분노한 듯한, 때론 체념한 듯한 얼굴 사진, 헌병이 겨누는 권총 앞에 언제 죽을지 몰라 겁에 잔뜩 질려 양팔을 위로 치켜 든 인민군 포로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는 편집자가 비판하는 것이 전쟁의 참혹함과 비인간성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실제로 편집자는 2004년 2월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RA)에서 한국전쟁 사진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스캔하여,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 책에 실려 있는 사진들을 보면 한국군이나 미군을 종군한 어느 사진 기자의 시각에서 전장의 긴장감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나 전쟁고아(하우스보이)의 등장, 폭격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사진집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목 차	유 형
1. 끝나지 않은 전쟁 - 박태균	글
2. 컬러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	사진
3. 유엔군과 미군	사진
4. 국군	사진
5. 북한군	사진
6. 피란민	사진
7. 전쟁 중의 생활상	사진
8. 전쟁고아·어린이	사진
9. 전쟁의 상흔	사진
10. 학살의 처형	사진
11. 전쟁포로와 포로수용소	사진
12. 휴전회담	사진
13. 심리전 전단과 포스터	사진
14. 한국전쟁의 비망록 - 박도	글

이와 같은 목차 구성은 이 책의 풍부한 사진자료들과 결합하여 전방과 후방, 전면전과 심리전, 군인과 민간인, 폭격과 학살 등 전쟁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자람이 없는, 매우 효과적인 분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전쟁은 전쟁사적으로 보자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쟁이었으나, 기간 상으로 보자면 길지 않은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3년간의 전쟁을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등으로 분류하였다면 전쟁의 흐름상에서 변화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사진 속에서 의미

하는 바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을 찍은 사진을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시대순·시간순으로 분류하는 방식보다는 국군, 북한군, 포로 등과 같이 주제별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사진을 테마별로 나눈 한국전쟁 사진집은 글로만 접하던 한국전쟁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진집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글 속에서 한국전쟁이 3년간 지속된 이유를 수많은 포로들의 사진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포로들의 모습은 전쟁이 끝나는 즉시 송환해야 한다는 제네바협정 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었던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포로문제가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가장 많이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라고 논자는 글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논자는 한국전쟁에 대해 나와 있는 모든 책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진집에서는 ‘전쟁중의 생활상’이라는 장에서 전쟁 중에도 농민들은 후방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전선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반 민중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사진집에서는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비록 한 줄이지만 정확한 연월일까지 제시되어 있는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덧붙여 있다. 예를 들어 ‘폭격으로 불타고 있는 집의 불을 끄는 가족들(원주 교향리, 1951. 2. 23.)’ ‘북한군이 동굴에 불법 감금한 300여 명의 정치범이 질식해 사망했다. 유엔군이 점령 후 시신을 확인하며 울부짖는 유족들(함흥, 1950. 10. 19.)’ 등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해당지역 및

발생 연월일을 기재하고 있다. 간혹 ‘포로들을 검색하는 미군들 (1950. 9. 22.)’ ‘서울 시가지를 누비는 북한군 탱크’ 와 같이 해당 지역 및 연월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부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들은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해당 지역, 발생 연월일을 간단하게 기입하여 독자들에게 해당 사진에 대한 상황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진집의 후반부에는 유엔군이 살포한 북한군 투항권고 전단 외에도 북한 노획문서에서 발견된 선동 포스터를 배치하고 있어 당시 북한 정부가 미군을 주적(主賊)으로 삼고 있었음과, 남한 민중에 대한 선동 방법 및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진의 소장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RA)이기 때문에 미군 종군기자가 주체가 되어 찍은 사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진집은 북한지역에서의 전쟁 모습보다는 남한지역에서의 전쟁, 포로 등의 모습이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집의 말미에 배치한 심리전 전단과 포스터는 북한지역에서의 전쟁 모습, 북한 정부의 활동상을 작게나마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기록학이나 역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진집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우선 매우 체계적인 목차(분류 체계)와 풍부한 사진 자료들을 비시간적 순서로 나열함으로써 이 자료의 장점을 생동감 있게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한국전쟁의 사진을 주제별·테마별로 분류한 것은 전쟁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자람이 없는, 매우 효과적인 분

류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대주제 안에서 사진을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하였다면 주제에 따른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위 목차에 입각하여 ‘유엔군과 미군’, ‘국군’ 등 각 목차별 관련 사진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했다면 전쟁의 흐름이나 전개 양상에 따른 주제의 추이, 분위기 변화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전쟁고아·어린이’에 실려 있는 많은 사진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배치했다면 한국 전쟁 기간 중 언제 어느 지방에서 전쟁고아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한국 전쟁을 보다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현재 한국전쟁 사진집은 편집자가 NARA에서 구한 자료를 스캔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들 정도로 배열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또 하나는 사진에 대한 기술요소가 너무 간략하게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해당 지역, 발생 연월일을 간단하게 기입하여 독자들에게 해당 사진에 대한 상황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사진 아카이브즈를 직접 구축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볼 때 사진제목, 생산일자, 규모와 매체, 생산자, 직접적 출처, 범위와 내용 등이 기술요소로, 인명, 단체명, 사건명, 주제명, 장소명, 지역명 등이 사진에 대한 검색어로 제시되고 있다.<sup>1)</sup> 단, 한국전쟁 당시 사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사진 자체에 대한 정보(규모와 매체), 생산자, 범위와 내용 등 좀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1) 현종철, 20심포지05, 「민중화운동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즈 구축을 통한 역사 정리」, 『한국기록학회 학술엄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사진자료집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각 목차별로 편집자 혹은 역사 전문가의 해설이 붙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모두에서 서울대 박태균 교수의 ‘한국전쟁의 비망록’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개관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편집자가 분류한 주제별로 이를 스케치할 수 있도록 1~2페이지 정도 전문가의 해설이나 편집자의 소감을 담았다면 한국전쟁의 실상을 더욱 다각도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휴전회담’의 경우 어떻게 회담이 시작되고, 또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며, 또 어떻게 회담이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면 본 사진집에 실려 있는 자료들이 더욱 빛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700페이지에 걸친 광범위한 사진은 이를 편집해 출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노력이며, 그 자체로도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행위, 또한 사진을 재구성, 편집하여 책으로 만드는 행위 그 자체도 역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요즘에는 자료를 편집한 의도를 솔직히 알리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만큼 이 사진집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알리고 자신의 한국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소감을 실었다면 더 재미있는 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대 역사학에서는 역사의 의미가 ‘역사 그 자체를 통해 배운다’라는 말로부터 ‘역사를 재구성한 역사가의 의도를 배운다’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역사가에 있어서 역사가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현대 사람들은 역사가의 정신, 역사가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한다. 이는 기록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기록 그 자체보다 기록을 재구성한 편집자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한다. 기록자의 주관성이 배제된 완전무결한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기 어렵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작가의 주관성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평가를 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는 2004년 2월부터 2007년까지 미국을 여러 차례 오고 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전쟁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사진들은 한국전쟁 당시의 참혹함과 비참함, 한국전쟁이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전쟁 후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다른 기록들과 다르게 사진은 현장감과 실제성을 내포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사실성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보다도 파급효과가 더 큰 자료라고 보여진다. 현재 다른 분야의 사진집들은 많이 출간되는 상황이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으로서의 사진자료들만을 편집하여 발간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전쟁 사진집은 기록학계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발도움이었다고 생각한다.